

서유럽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고찰

안영진* · 박영한**

A Study on the Western European Regionalism since 1970's

Young-Jin Ahn* · Young-Han Park**

요약 : 이 글은 1970년대 이후 서유럽 선진산업국가들에서 새로운 사회정치적 갈등으로서 재흥한 지역주의를 그 전개양상과 유형, 성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들을 개념적 차원에서 분류 서술한 것이다. 특히 사회과학에서 사회발전론으로서 지배적 위상을 지닌 근대화론을 개괄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주의를 둘러싼 제반 테제들을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그리고 탈분화론으로 나누어 발전론적이고 구성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들 테제를 실증적 자료에 의거하여 모두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주의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이론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또한 지역에 대한 상이한 메타이론적 개념구성은 사회지리학에서 지역개념을 정교화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서유럽, 지역주의, 근대화론, 분화론, 지속론, 과정론, 수렴론, 탈분화론

Abstract : The essa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ism as new social-political conflicts in Western Europe since 1970's and explores theoretical approaches of regionalism in terms of modernization theory of social scienc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regionalistic movements: separatism, regional equity development, federalism, autonomy, nationalism, and so on. These different orientations have already shown serious problems, theoretical and conceptional, concerning the analysis of regionalism. But in conceptualizing this phenomenon, five competitive theses could be distinguished: persistence thesis, differentiation thesis, political procedure thesis, convergence thesis, and counter-differentiation thesis. Although the heuristic theses are still elaborated on the base of empirical studies and actual data, they indicate that each thesis ontologises the region as one of the key concepts explaining regionalism very differently.

Key Words : Western Europe, regionalism, modernization, persistence-, differentiation-, political procedure-, convergence-, and counter-differentiation-thesis.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 이후 地域主義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학문적 관심사의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새로운 定型의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지연, 지방색, 지역감정, 지역갈등, 지역패권, 지역의식, 지역정서, 지역연고주의 그리고 지역할거주의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망국적인 병폐로 또는 지배적 갈등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지역주의에 관해 많은 논의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은 여러모로 분석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가 백화쟁명식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현상인식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아울러 현상에 대한 다양한 지칭은 나름대로의 선별된 관점과 분석의 전제를 암묵적으로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 설명논리가 여전히 결여된 피상적 문제이해에서 출발하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강사(Lecturer,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고 있는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의 지역주의를 역사적 잔재로 보는 잔재론, 인력충원이나 경제구조의 격차로 보는 토대론, 그리고 선거로 통해 가열되는 정치조작론(김문조, 1992) 등으로 간략하나마 개념적인 구상 아래 접근하려는 시도는 그래도 문제의 본질을 보다 논리적으로 탐색하려는 학술적 노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論題도 부분적으로 절충론적 이해가 앞서 아직까지 충분히 정교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역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양태로 표출되고 있으나, 그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분석된 것이 많으며, 지역주의의 발생과 전개에 있어서도 재 요인들의 역동적 관계의 형성과정이나 기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조은, 1992, pp.167-70). 다른 한편으로 대중운동론으로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면서 우리의 지역주의가 갖는 사회경제적, 정치적 함의가 과대평가되거나 부분적으로 왜곡되는 측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론의 한계는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하고 있는 데서도 발견된다. 즉, 사회과학 일반에서 지역주의를 이해하는데 그 본질적 개념의 하나인 지역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주의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것을 공간의 맥락 없이 전개되는 사상으로 파악하는 사회과학 전반의 소위 空間文盲性을 들어내고 있다(김종철 외, 1991: 남영신, 1991: 한국사회학회 편, 1992). 전체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체계적인 분석시각과 논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의를 우리의 특수 현상으로서만 보고 그에 대한 서술에만 매달려 온 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에게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선진 산업국가의 사회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1960, 70년대를 전후하여 서유럽에서는 정치적 신지역주의만큼 당시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혁을 내부적으로 특징짓는 현상도 없었다. 사회과학은 보다 빈번히 대두하기 시작한 지역주의에 상당히 당혹해 하였는데, 그것은 우선 현상을 설명하려고 동원된 기존 사회과학의 일반적 언술이 한계를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Markusen, 1987). 특히 주로 서구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근대화론에 기반을 둔 지배적 사회이론으로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이는 지역주의에 의해 제기되는 이론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사회과학자들은 사회문제를 사회체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기 위해 과학적 언어로 설명할 때, 일상적이고 생태적인 측면을 순화하여 수용하는데 익숙해 있다. 바로 지역주의는 공간 내지 지역이라는 분석 범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차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여 그 설명력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사회과학이 일정한 척도에서 그리고 시-공간적 구조와 상호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구조의 성립과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만족할 만한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였음을 말해 준다(Agnew, 1987). 또한 지역주의에 대한 당혹감은 국가의 주도 아래 지역-시민사회의 통합과 지배라는 국가관리형 그리고 경쟁과 시장효율을 중심으로 한 산업우선형 사회체제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일반적 관념 내지 통찰과의 비조화성에 근거하고 있다(Müller and Schmid, 1994). 결국 지역주의의 운동 내지 지역갈등을 國民形成(nation building)의 정치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부차적인 사회현상으로서, 아니면 전근대적 전통의 완고한 유증으로 치부하거나 단순히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 평가하곤 하였다.

본고는 우리 사회의 지역문제 내지 지역주의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유효하게 접근하기 위한 의도에서, 서유럽의 지역주의에 대한 사회과학의 제반 논의를 개념적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서구 지역주의의 설명적 틀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인지, 한국의 지역주의가 어떠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갖는지를 염두에 두고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주의가 현대 산업사회의 변동과 구조 그리고 발전에 던지는 질문과 논점을 검토하고, 그와 더불어 사회지리학적 관점에서 사회과학에서 낯선 공간 및 지역 범주의 함의에 관해서도 주목하였다. 우선 서유럽의 지역주의 운동의 양상과 유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근대화론의 맥락에서 간략히 유추한 뒤, 그에 조응한 지역주의를 둘러싼 여러 이론적 논제들을 몇몇 갈래로 나누어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서유럽 지역주의 운동의 성격과 전개

1970년대 중반 이후 서유럽에서 새롭게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빈번히 장식하기 시작한 지역주의 운동은 사회과학에서 그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지역주의 개념 자체는 일천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항상 사회정책적 논쟁과 밀접한 관련 하에 전개되어 왔다. 서유럽에서 지역주의는 프랑스에서 막 마온(Mac Mahons) 대통령의 재임기(1873-79)에 중앙집권적이고 복고적인 일련의 국가통합정책에 대한 지방의 저항적 투쟁의 총체 개념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세기에 들어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지역주의 운동이 대두되면서 나름대로 개념정립의 노력은 있었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분명한 체계적 관점 없이 논의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서유럽에서 지역주의의 성격과 개념은 연방주의나 할거주의, 지방주의, 자치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넓게는 민족주의 등과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관련한 개념화 작업을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용어를 둘러싼 현상의 다양한 전개양상과 배경 그리고 그 유풍을 정리해 보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지니리라 생각된다.

게르데스(Gerdes, 1987)는 정치학의 시각에서 지역주의는 오래 전에 소멸하였지만 다시금 새로운 해석이 요청되는 현상으로서, 한 국가 내정의 갈등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그는 지역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강령의 정치사회적 연관성에 비추어 지역주의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지역의 지리적-자연공간적 성격과 그 이해에 서서 기존의 국가영역 안에 비교적 동질적인 공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러한 공간이 띠는 동질성의 확정과 주창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준거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때 일반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차원이 강조된다. 둘째, 그러한 지역의 구획은 항상 지역의 존재 혹은 정체성을 역사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위의 공간단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존의 국민국가, 연방국가 또는 각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상위의 공간단위로

서 언급될 수 있다. 셋째, 상위의 공간단위 안에 동질적 공간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조하는 것은 곧 지역주의를 정치사회적 교란계기 혹은 기존의 국가 및 사회체계의 (중앙)집권화 경향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회정치적 조형원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서유럽에서 지역주의의 전개양상 내지 그 도전의 과급범위를 운동과정에서 주창되는 전략과 쟁점의 배경에 따라 분리주의, 연방주의, 자치주의로 구분하고, 이와 동시에 운동의 동원강도와 정치적 영향력에 의거하여 다시 세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강도 또는 영향력은 먼저 지역의 동질성이 지역주민들에게 역사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사실로서 얼마나 설득력있게 이해되며, 둘째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수동적 희생공간이 그것을 사회지향적(예컨대 노조와 기업단체) 또는 부문지향적(예컨대 농민단체) 성격의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이해집단과의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한편 지역 내에서 그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통일적으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특정 문제를 중앙의 통제 하에 있는 문화정책, 농업정책, 중소기업정책 그리고 지역정책 등 부문정책적 분야와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통로화하는 것과는 반대로 그것을 어떻게 단위 지역의 領域的 전체상을 견지하며 일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풀레(Puhle, 1979)는 보다 앞서 지역주의를 또 다른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는 지역주의를 역사문화적으로 규정된 일부 지역이 중앙의 국가권력에 대해 정치적 조직화나 영향력의 행사를 통하여 자치권의 획득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나 운동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통해 논하고 있다.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을 때 단순한 지역적-문화적 특성의 자각이나 전통문화의 보전운동이 정치적 지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가? 지역주의는 경제발전과정, 특히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와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 지역주의 운동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이른바 임계지역을 판별할 수 있는가? 나아가 지역주의 운동이 분권화정책이나 자치권의 인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수용되고 해결될

수 있는가? 그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주의의 발생 배경과 규정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를 테면 중앙의 국가권력에 반발하는 지역들 가운데에는 한 국가 내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도 있고 번성한 지역도 있다고 한다. 영국의 웨일즈 같이 대체로 농업이 탁월하고 도시화가 미약한 지역이 있는 반면, 스코틀랜드같은 지역은 그와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 두 나라에 걸쳐 있는 카탈로니아나 바스크 지역처럼 한 쪽(프랑스)에서는 다른 쪽(스페인)만큼 운동이 활발하지 않는 이른바 부분적 지역주의도 있다. 또한 북아일랜드의 지역주의에는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가진 사회집단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카톨릭 지역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를 아일랜드와 통합하기를 희구하는 반면, 보다 풍족한 신교도들은 영국 내에서 지역자치권을 상대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한다. 그는 여러 지역의 언어나 종족 등 역사문화적 성격, 사회경제적 발전상황 그리고 정치형태를 서로 결합하여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정리하고 있다(비고: Boesler, 1982, p.119-122).

하지미칼리스(Hadjimichalis, 1987)에 의하면, 과거 서유럽의 지역주의는 주로 농민의 투쟁 또는 주변부 소수민족들의 문화, 언어, 종교문제 등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지방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의 지역주의는 경제발전과정에 부각되는 국가의 기능적 합리주의나 권위주의, 기술관료적 이데올로기 등에 비판적으로 대항하는 지역주의자들의 반응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즉, 현재의 지역주의는 중앙정부의 소위 불균등한 地域化政策에 저항하는 국지적 사회운동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로 규정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과 저발전, 저임금 등 지역사회적 계급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와 하위지역 사이의 사회공간적 관계를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화란 중앙 정부의 자본주의적 발전논리에 의한 일방적인 지역개발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 지역들이 중심부와 대등하게 개발되지 못하고 오히려(반)주변부의 종속적 한계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바로 196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된 이러한 파행적 지역화에 대

항하는 지방주의적 반응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논지에 따라 그는 지역화와 지역주의가 서로 어떠한 양식으로 접합되는가, 즉 지역화의 작용적 영향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지배적 반응패턴과 지역사회적 표출이 어떤가에 의거하여 서유럽 지역주의를 정리하고 있다. 먼저 지역화에 대해 반응이 없거나 주변부의 일시적인 반발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통합과 경제적 근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서로 보완적으로 결합되는 경우와 구체적으로 지역운동으로서 표출되는 地域動員의 경우로 구분하고, 후자를 더욱 세분한다. 즉, 지역동원을 세가지 형식으로 나누고, 그 사회적 실천 내지 표출양상과 대표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지방주의나 강한 종족주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에 기반한 지역동원 유형으로서, 예컨대 극단적인 군사투쟁과 테러를 강행하는 바스크 이타(ETA)와 정치적으로 자치권을 강력히 요구하는 카탈로니아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는 소수 대중이 참여하는 지역간 또는 한 지역과 국가간의 패권 내지 주도권 장악 및 쟁탈과정에서 야기되는 지역동원 유형으로, 정치경제적으로 비교적 방어적이고 수동적 동원에 의존하는 북이탈리아의 프리울리/베네치아 부르조아운동과, 중앙 정부의 자본 보조금을 요구하는 크레타와 펠로스 및 정치적 사안과 문제를 중심으로 일반 대중과의 국지적 연대를 모색하는 시칠리아와 미가라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일종의 지역사회운동으로서, 지방의 지배계급 및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 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지역동원 유형으로, 다소 방어적 요구를 내놓고 있는 안달루시아, 에밀리아/로마냐, 갈리시아 등이 이 부류에 해당한다.

지역주의 운동은 오늘날 서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1970년대 이래 서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지역주의를 둘러싼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특히 매우 조심스러운 지역정책적 관여와 더불어 정치제도적 개혁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국가의 총량 경제를 확대시키려는 목표에서 주로 산업경제개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기능적 지역화의 하향식 효용원리가 국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대체되고 있

다. 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전래의 연방주의적 전통을 국가법으로 보완 강화하거나(예컨대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이탈리아), 국가 정치체계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중간차원으로서의 지역을 새로운 자치기구로 설정하고 정착시키는 분권화작업을 추진한다(예컨대 프랑스). 또한 자치협정과 종족진흥법의 제정을 통하여 개선하려는(예컨대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다양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Kolinsky, 1984, pp.169-75; Esterbauer and Pernthaler, 1991).

최근에 이르러 서유럽의 지역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서유럽에는 분권주의와 통합주의의 두가지 정치적 흐름이 병존해 왔는데, 1970년대 지역의 독립과 자치를 획득하고자 한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운동과 그에 따른 경제사회적 도전과 갈등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유럽화와 세계화의 새로운 정치사회적, 공간적 통합과정을 보완하는 지역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즉 정치, 경제 등의 세계화로의 구조변동을 상보하고 지역의 독자적 특질과의 성찰적 화해를 통해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일상세계의 구조를 새롭게 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근대화에 대한 대중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지역주의가 제2의 그리고 지속적 근대화의 구성요소로서의 지역주의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유럽의 유럽연합으로의 통합과 관련하여 “제지역의 유럽”에 대한 모색은 확실히 브루셀의 중앙집권적, 기능주의적 정치관료 체제에 대한 의구에 찬 경계에서 나온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거와 다른 지역주의의 진일보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Schelter and Würmeling, 1995, pp.24-7; Bullmann, 1994; Bullmann *et al.*, 1997). 다시 말하면, 지역주의 자체가 세계화 과정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세계화와 병행하여 나타나는 분절화와 탈중심화는 부분공간의 지역적 개성의 발견 내지 재발을 가져오고 지역경제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고 있다(Lindner, 1994, p.7; Danielzyk, 1994, pp.85-110). 따라서 지역주의는 지역을 경쟁력 있는 경제적 이용공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함으로써 그 지역의 자발적이고 내생적 발전을 모색하는 논리이자 실천이념으로 상정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의 지역주의 운동

내지 전략은 과거의 투쟁적이고 경직적인 분절화를 추구하는 성격을 넘어, 통합주의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새롭게 정형화되고 있는 시대적 적응논리로 이해되고 있다(Newhouse, 1997).

이처럼 서구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매우 다양한 현상형태를 띠고 그 전개과정도 서로 달리고 있으며, 그 의미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방주의, 지역간 균형발전주의, 지방자치주의, 지역분리주의 혹은 폐쇄적 지방주의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박영한, 1985, pp.213-16). 서유럽을 비교적 동질적인 문화권으로 전제할지라도, 내부적으로 領域構造를 사회갈등의 한 축으로 하여 같은 유형의 사회정치적 문제가 매우 상이한 양상과 층위를 띠며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Jordan, 1996; Hradil and Immerfall, 1997). 지역주의의 조류는 근대화의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기대심리가 지역적 행동주의로 나타난 것으로서, 근대화는 실제로 그 수사와는 달리 경제적이든 종족적이든 또는 정치적이든 간에 다양한 성격의 이른바 한계지역들을 통합하고 개선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정치경제적 욕구나 문화종족적 심리문제 등이 국가마다 서로 독특하게 얽혀 다양한 형태의 지역주의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임경수, 1989, p.29). 대체로 1970년대 이래로 서유럽에서 재확인된 지역주의 운동은 19세기 이후 유럽의 독특한 상황에서 근대화의 사회발전이 가져 온 제반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려는 여러 시도들 가운데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3. 사회발전과 지역주의

사회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개연성과 예측가능성의 결여로 사회과학에서 여전히 불유쾌한 논제로 남아 있다¹⁾.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관찰된 현상을 유형화하는 데에만 그친다면, 그에 만족할 사회과학자들은 매우 적을 것임에 틀림없다. 지역주의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어, 예측까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사회발전과 관련하여 지역주의가 어떤 의미를 띠며, 그것이 사회과학의 이해와 설명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가가 핵심적 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사회발전 내지 변동을 이해하고 탐색하는데 지배적 이론체제로 원용된 근대화론에 의거하여 먼저 지역주의를 개괄적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사회행동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체성을 조장하는 정향적 준거틀로서 지역주의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사회공간적 단위로서의 지역은 국민국가의 형성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사회문화적, 역사적 전통을 가진 실체이자, 서유럽에서는 국민국가 형성의 구성적 기체가 되었다(황태연, 1997, pp.303-25). 오늘날 서유럽에서 전개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 이래 국가 속에 매몰되었던 지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때 지역주의는 노동운동과 같이 현대 산업사회의 전형적인 사회운동의 하나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환경생태나 평화 또는 여성운동 같이 현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위기상황들의 단순한 표출도 아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서유럽의 지역주의 운동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발전상황과는 비교적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과학에서는 그 이해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역주의를 신사회운동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Brand, 1985, pp.306-34; Kriesi et al., 1995)

현대 산업사회의 표상은 무엇보다도 분화된 공간구조 속에 투영되고 있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 내지 근대화 과정이다. 산업사회의 구조는 항상 근대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근대로의 발전과정에서 그 연속성에 대해 사회과학은 그다지 큰 의문을 품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 소수의 서구 사회가 경험해 온 세기에 걸친 발전과정으로서 정의되는 근대화는 일반적으로 단순하고, 빈곤한 농경사회에서 복잡하고 분화된 산업사회로의 발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근대 사회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지국가 그리고 대량소비 등이 기본적으로 제도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복지사회로의 발전 내지 확립이 근대화의 본질적 소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근대화와 관련된 사회과학의 논의는 몇몇 기본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어떻게 사회질서가 유지되며, 그 질서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내-외적인 변

동을 가능케 하는지를 비롯하여, 사회 성원이 생존과 물질적 재생산을 위해서 전체 자원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배분 운용하며, 그들이 정치적 지배를 통하여 어떻게 체제의 안전을 확보하며, 그리고 심리적 재생산, 즉 다음 세대의 사회화를 어떻게 조직화하느냐 등이다. 근대화론은 이러한 논제와 그 구성요소들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써, 영국의 산업혁명과 프랑스의 정치혁명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근대화는 다름 아닌 하나의 사회변동 형태로, 더 정확히 말해 지난 200여년간 서로 연계된 변동과정을 국민국가의 형성, 인구학적 변천, 사회적-정신적 동원(특히 사회적, 지리적 이동성), 보편화와 합리화, 인간과 사회의 점증하는 상호의존성, 정치적 참여확대, 경제발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분석되어 왔다. 이론의 기본전제는 내발적, 기능론적, 낙관론적, 자기증심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회발전을 기본적으로 단선적 변화방향에서 고찰하였다.

그런데 근대화론은 그 동안 전세계를 포괄하여 사회의 변동 및 발전과정을 설명하면서, 근대화는 저발전 사회의 다양한 추적 및 회복과정으로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²⁾. 실제 1950년대 이후 근대화론은 후진국의 사회개발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는 지역주의를 둘러싼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먼저 서구를 모범으로 하여 개발도상국에 적용된 각종 개발프로젝트가 많은 경우 실패하고 서구화 내지 미국화라는 비판과 함께 소련, 중국, 쿠바 등 사회주의 체제의 발전모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으로 국제정치적 쟁투가 전개되면서 근대화론은 심대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근대화론이 기본적으로 각 사회의 특수한 여건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공통성과 일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제3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과 인적, 물적 교류를 증대시키면서 선진국의 대규모 자본과 선진기술 때문에 오히려 저발전하게 된다는 종속이론 및 신제국주의이론(신식민주의론) 등이 근대화론의 비판에 앞장섰다. 이러한 비판이 제3세계에서 1970년대 중반부터 근대화론의 적실성을 떨어뜨리고, 개발도상국에서의 근대화 과정이 서구에서 사회과학적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Zapf, 1996: 1997).

그 후 선진 산업국가 내에서도 근대화 과정이 미치는 정치사회적 영향이 국가발전의 정책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선진국에서도 관찰되기 시작한 지역발전의 시간적 차질은 일시적인 것이며, 근대화 과정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없이 여전히 발전사회학의 개념을 통해 수정되고 후기 산업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띠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선진 산업국가의 사회발전도 낙관적으로 보아온 것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파행과 모순을 낳았다. 이러한 단계에서 헤chter(Hechter, 1975)의 내부식민주의가 소개되었다. 서구 사회의 근대의 문명사적 기획이 학문적 논의에서 보다 강도 높게 비판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서유럽에서 자각되기 시작한 바로 18, 19세기적 사고방식에 대한 자기반성과 관련된다.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유럽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외향적으로 보아 정치적 근대화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통일적인 지배체제가 형성된 것 같았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그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다양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지역적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자치 의식의 전통이 뿌리깊게 남아 있는데, 이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경제생활과 법관습의 면에서도 지역의 특성과 자율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의식이 오늘날까지 매우 강력히 자리잡고 있음을 뜻한다(Klüting, 1991). 근대화론에서 보여 주는 진화론적이고 보편적이며 성장지향적인 발전모델에 대한 도전이 서구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Bühl, 1992, pp.9-10).

따라서 지역주의를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한 신 사회운동도 그 동안 서구사회에서 그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통로를 통해 유도되고 부분적이지만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구사회운동의 구조적 저지의 또 다른 표출양식이라는 것이다(Allum, 1995, pp.134-47). 여기서 지역주의가 얼마나 전근대 사회의 유증으로서, 또는 지속적으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새로운 갈등현상으로서, 아니면 탈근대 사회의 맹아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논제가 제기된다.

4. 서유럽의 지역주의론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체계화하려는 노력들이 이미 알 수 있듯이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인과적 접근을 넘어선 중층적 관점과 다양한 이론적 시각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에 적용되는 개념과 모델, 설명가설 등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나 아직도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역주의를 단순히 개념적으로 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에 적잖은 난관이 수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에서는 지역주의의 등장배경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주로 근대화론과 관련한 문제설정에서 구명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주의에 대한 논의들을 몇몇 시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Agnew, 1981; Blaschke, 1989; Riescher, 1991; Pieper, 1987).

1) 지속론

문화적, 종족적 전통의 견지 내지 지속이 근대화론의 맥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시대에 뒤진 것이거나 퇴행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화의 과정이 합리성과 진보의 이념 아래 전개되어온 만큼, 지역주의가 비합리적이고 감성적인 구시대적 사회구조상의 표현으로, 전근대적 사고패턴으로의 회귀로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단순히 해소의 와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근대화의 현실적 위기라는 과도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 정도로 간주하고 있다. 즉, 지역주의 운동을 오래 전에 소멸된 것으로 믿었던 사회문화적, 역사적, 종족적 갈등의 재흥에 대한 표상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지역주의를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소위 지속론의 중심 논지이다(Gerdes, 1994, p.385).

그러므로 지속론자들은 종족적 정체성이나 문화적 표징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해체가 저지된 역사적 관성을 지닌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 대표적 논자인 로즈(R. Rose)는 지역주의적 갈등을 현시대의 사회적 긴장을 대신하여 역사적으로 온존해 온 산물로 평가한다. 사실 그 정체성은 일상적인 풍속과 관례, 제도화된 하부

구조에서만뿐만 아니라 문화경관에서도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속론적 테제에 의하면 사회운동으로서 지역주의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또는 정치적 갈등의 대치선이 중심부와, 위와 같이 간존하고 있는 문화적 경계, 예를 들어 특히 방언의 경계를 지니고 있는 주변부 사이의 쟁투에 부합하여 정치적 상징무기로 양식화될 때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경제적 분화(특히 계급)가 그 함의를 상실하면서 종족적, 지역적 차이가 후기 산업사회의 상대적 복지의 反射效果로서 부각될 때 지역주의가 운동화된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역사적으로 살아 남은 현상으로서 보는 로즈의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킨 리즈파트(A. Lijphart)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지역주의적 갈등의 현실적 재흥 내지 발생을 그 사회경제적 갈등정형이 실효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리즈파트와 지속론적 테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사회계층 내지 계급으로 나뉜 사회의 외양적으로 퇴락한 덮개 아래 종족 문화적, 다시 말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 사회구조체에 전근대적 귀속감이 크게 부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적 갈등패턴과 근대의 사회경제적 문제상황이 결코 상호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자의 조우가 지역주의의 발현을 추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Hrbek, 1994, p.20). 이때 전혀 그릇된 것이 아니듯이 정치적 과정에서 어떤 사회분화가 비록 객관적 갈등대치선과 항상 조응하지는 않지만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동원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다. 종족적 정체성은 더욱이 여러 표징들(언어, 종교, 고향, 민족 등)의 특정한 정황에 반드시 소급되지 않는다. 문헌상으로 그 상호관련성에 대해 반대의 실례를 풍부히 찾아 볼 수도 있다(Jordan, 1996, pp.197-200). 정체성은 서로 다른 표징들의 力學場에서 상대적 자율성을 띠는 일종의 자기형성 내지 자기조직화 과정의 산물이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문화구조만큼이나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실제 현상의 해석학적 동화에 아주 미약하게 환원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지속케 하는 가능한 상호작용에 앞서 구조화된 것일지도 모른다(Pieper, 1987, p.536).

다시 말해서 전통 자체가 사회집단의 종족적·영

역적 본질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상황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콘텍스트의 모습으로서만 다가오고,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재해석됨으로써 비로소 함의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은 문화변동의 시간 지평이 단명의 근대화 과정에서의 변화보다 훨씬 장기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사회적 과정은 그 사회적 척도에 의해서 만큼이나 시간적 척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적 정체성이 객관화된 문화경관의 질료적 속성이다. 이러한 경과는 스스로 이해하고 의사결정하는 개별 주체의 지평만을 묘사하려는 사회과학 이론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 척도의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구조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술은, 그것이 생물학과 화학, 그리고 물리학 등 자연과학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른바 자연체계의 자기조직화 이론처럼 분화된 모델을 요청한다. 물론 사회과학에서 헤거스트란트(Hägerstrand)와 그 후학들의 시간지리학을 도입하여 재구성한 기든스(Giddens, 1984)의 구조화이론 같이 사회적 구조형성 이론에 전용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비로소 출발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간과 시간에서 문화적 표상의 전파는 확실히 현대의 사회경제적 과정(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과 거리의 극복)을 통하여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바로 각종 매체를 통한 획일적 대중문화의 일방적인 확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성을 자극하였다. 근대화는 지역 문화와 지역의식에 대한 새로운 욕구를 표출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리성을 근대화와 동일시하는 근대화론에서만 이러한 욕구가 비합리적이고 역행적이고 순전히 감성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하위)문화적 정체성은 그와는 정반대로 성공한 개인적 그리고 집합적 자결의 결정적 구성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보편적 근대화의 (인간)해방적 기대에 반하여 인간생활의 도발적이고 파행적인 정형화를 초래하였을지도 모른다(Touraine, 1986).

2) 분화론

지역주의를 근대화 과정의 틀에서 설명하려는

접근들은 대체로 분화된적 태세에 집약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은 한 국가의 영역이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되는 불균등한 (정치)경제적 발전에 있다. 경제지리학을 비롯하여 지역경제학, 지역 및 도시사회학, 지역(사회)개발학 등 지역과학자들은, 비록 한 국가의 생활수준은 경제발전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향상되지만, 지역간의 상호경쟁으로 공간적 격차의 구조에 항상 질적 변화가 야기되며, 많은 경우 중심부의 입지 이점이 언제나 새로운 격차와 불평등을 낳는다는 데 대체로 합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지역주의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것을 경제발전과정에서 야기되는 공간상의 불평등 문제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며(대표적으로 Massey, 1978), 부분적으로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원용한 종속이론에 의거하여 공간경제의 비동시적이고 불균등한 발전을 지역주의의 동인으로 내세우기도 한다(Gottmann, 1980).

따라서 지역주의는 정체를 겪고 있거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저항이나 번성하는 중심부 지역의 자의식과 결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주의는 이를테면 영국에서 잉글랜드에 대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의 관계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구조적 차별화를 전개하는 중앙의 내부식민주의에 대한 지역적 항거로 포착된다³⁾. 하지만 이러한 항거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발전이 뒤쳐진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최대 조세 지불지역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진보한 능동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북부동맹(Lega Nord)은 그들이 내는 세금의 거의 대부분이 이탈리아 남부의 빈곤한 메조조르노지방(Mezzogorno)을 지원함으로써 곧 바로 이들 마피아지역으로 흘러 들어가며, 이로 인해 점증하는 북부 이탈리아인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의 직접적 통합을 지향하는 분리적 지역운동을 전개시키고 있다(Schmidtke and Ruzza, 1993; Sales, 1995).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주변부에서 정치적 운동으로서 지역주의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르다는 점이다. 한편에서 지역주의를 특정 지역이 전체 사회발전에 적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문제의 표출 정도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

역의 저항을 계급투쟁의 특수형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동원의 바탕이 되는 사회문화적, 종족적 전통이 전자의 경우에는 구시대의 遺贈으로서 간주되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정치적 갈등과 투쟁이라는 전략 안에서 상징적 무기로 설정되고 운동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고 있다. 물론 두 시각에 논리적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첫번째 입장은 적응의 문제라는 표현이 격차 자체를 자칫 문화지체가 아니라 현대 산업사회의 기능수행 과정의 불가피한 산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반면에 두번째 입장은 중심과 주변의 갈등과 긴장의 대치선이 계층 또는 계급 사이의 사회구조적 분화와 거의 무관하게 횡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다.

특히 지속론적 설명모델과 달리 종족적 정체성의 정치적 재흥을 그 동기와 연관시켜 설명하려고 시도한 마이클 헉터는 지역주의를 사회생활에서 비교적 수동적 요소로 작용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획득되는 인간적 가치인 종족적 정체성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태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지역주의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는 문화적 분업 또는 불균등 발전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과정도 연대의 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체계에서 지역 주민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위치에서 있다는 점 이상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발전의 양극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널리 알려진 경제적 접근은 너무 일반론적이어서, 그것이 지역주의의 성립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정되었을 뿐이지 입증된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Gerdes, 1994, p.387). 헉터와 그 후 네이른(T. Nairn) 등도 겔너(E. Gellner)의 文化社會學과 다른 한편으로 고전적 맑스주의의 계급주의론을 원용하여 경제의 구조적 발전과정이 어떻게 정치적 갈등으로 연결되는가를 설명하였지만, 여러 학자들로부터 구조적 결정론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Krosigk, 1980, pp.25-48). 이러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공통점은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그것이 낙후되고 빈곤한 주변부와 강경하고 경직된 중심부에서 지역주의적 운동이 대체로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는 경제적 분화가 오늘날

지역주의 운동의 필요조건임을 시사해 준다.

3) 과정론

종족문화적이고 영역적 忠義의 자연발생적 재흥이라는 관점과 경제적 저발전에 대한 필연적인 지역주의 저항 테제로 만족스럽게 설명되지 않는 지역주의 운동은 정치적 과정과 상호작용 그리고 그 발생조건 측면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의 운동의 발생과 전개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학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과정론적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부르주아와 유럽의 여러 한계 지역에서 다년간 지역주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여성정치학자 수잔느 베르거(S. Berger)는 전술한 종족 및 사회문화의 요인론적 접근과는 다른 논지를 펴고 있다. “유럽에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점은 종족적 상이성의 재흥이 아니라, ... (중략) ... 그를 둘러싼 정치적 과정의 조직화이다”. 그리고 후기 산업사회의 예언자인 다니엘 벨(D. Bell)도 이점을 보다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종족성은 깊이 뿌리박힌 정체성으로 표출되는 근원적 조건이 되는 범주로서가 아니라, 기껏해야 권력과 실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조건 하에서는 다른 집단에의 소속을 선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전략적 선택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⁴⁾.

政治過程論的 논제의 성립배경은 우선 196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서유럽 국가들에서 구상되고 추진된 지역적 경제순환에 대한 국가의 조직적 간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지역주의의 발생을 기술하는데 현대 간섭주의 국가의 기술관료와 계획입안자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알려져 있듯이 지역이나 지역주의와 같은 개념은 ‘반란적’ 자치주의자나 분리주의자의 발견이 아니라, 전후 서구 산업국가에서 국가행정체계와 경제관리에 주도적 위치를 점하며 행정효율과 경제계획을 지향한 기술관료정치에 의해 창안된 것이었다. 비록 60년대의 기술관료적, 기능주의적인 국가 주도의 지역주의 자체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탐색 없이는 이해될 수 없을지라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역의 재발전은 확실히 부분별 그리고 지역별 근대화 정책과 함께 국가의 방치된 성장잠재력을 의식적으로 동원하려고 한 구조정책적 지역계획전략

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중앙 정부의 관점에서 기획된 추상적 현대화가 지역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종종 지역의 구체적 발전 기대에 대한 위협 또는 파괴로 비춰졌으며, 이는 곧바로 참여 가능성의 확대에 대한 강력한 요청으로 이어졌다(Bahrenberg, 1993, pp.65-8). 따라서 의도적 지역정책과 지역주의 운동의 발생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을 쉽게 읽을 수 있는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벨기에,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등에서 지방의 항거를 설명하는데 정치과정론적 테제는 독특한 설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Gerdes, 1994, p.389).

이런 맥락에서 지역적 저항의 조직능력은 한 국가의 기존 정치행정구조의 성격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이것은 투쟁과정에서 지역의 엘리트집단이 수행하는 역할과 위상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가통합을 강조하는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에서는 지역의 의지형성 내지 긴장이 정치제도적 틀 속에 원활히 흡수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적 저항에 대한 정치체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데에는 지역 엘리트 집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⁵⁾. 지역 엘리트는 보통 지역갈등에서 국가적 이해관계의 실무적 대리자로 등장하거나 또는 지역의 제반 문제와 스스로 동화하기도 한다. 엘리트의 이러한 자기이해는 그 자체로 이미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데, 보통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또는 스위스처럼 정치행정조직이 분권화된 연방주의 체제 하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깊이 토착화되어 있다. 지역 엘리트의 역할 내지 위상은 국가적 또는 국제적 연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오늘날의 현대화 과정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물론 보다 복잡다단해진 현대의 국가체제에서 중앙에 의해서 더 이상 원활히 수행될 수 없거나 부담이 되는 국가행정적, 거시경제적 과제와 업무권한의 일부가 분권화된 지역조직을 통하여 지역 엘리트 집단에 계 이관됨으로써 이들 지역 엘리트의 위상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실제 지역운동의 선두에 나서지 않는 한, 이들 지역 엘리트들을 일종의 완충의 기능 속에 밀어 넣는 밀로부터의 정치적 동원과정에 의해서도 그 위상이 부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 테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예를 들어 스코틀랜드의 지역주의는 그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자기 고장의 강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영국이라는 전체 국민국가와의 동질성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제도화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이때 지역주의적 쟁투는 제도적으로 확립된 정치행정적 통로를 거쳐 유도되고 있음이 돋보인다. 지역주의가 이 곳에서는 사회운동으로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경우 지역 정체성은 국가라는 집합적 정체성의 위계 속에 견고히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Harvie, 1994: 1995). 따라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지역의 제도적 장치를 국가라는 구조형성 과정의 결과로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문제설정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라는 거시수준 이외에도 지역적 제도장치라는 중간차원과 구체적인 생활과 연관하여 일상적 지역의식과 정체성이 (재)생산되는 미시수준을 구별해 주는 다층적 위계모델이 왜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정치행정구조는 확실히 전체 정체성의 위계 형성에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의가 확립된 제도적 장치 안에서 아니면 사회운동으로서 어떤 형태와 접합되고 지역적 이해관계가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관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전제조건이 된다. 여기서는 지속론과 달리 전체적으로 보다 복잡한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체계에서 사회문화적 전통이 지역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어떤 내재적 계기로 작용하는지를 만족스럽게 다루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Riescher, 1991, p.11).

4) 수렴론

앞서 논의한 지속론과 과정론(부분적으로 사회운동론)의 개념구상에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사회정치적 과정의 尺度論이 전제되고 있다. 사회과학의 일반이론은 사회현상을 파악할 때 보통 스케일과 관련하여 매우 간단하고 실용적인 거시-중시-미시체계의 도식을 갖고 변통해 나간다. 이때 한편으로 함묵적적이고 유효한 조직의 현상적 성격이 도입된다. 경제부문에서는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가, 정치분야에서는 유효통제의 한계가 그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학의 체계론에서는 사회통제의 매체를 사랑과 신뢰, 권력, 화폐 그리고 진리 등으

로 세분하고 있다(Luhmann, 1984; Willke, 1993, pp.228-44). 각각의 매체는 사회적 행동체계의 관찰과 조정에 있어 서로 다른 도달범위를 갖고 있다고 한다. 사랑과 신뢰는 미시수준에서 사회를 조직하는 힘을 발휘하지만(일상생활계의 사회통합), 권력과 화폐 그리고 진리는 거시수준에서 각각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부분체계를 구성하며 제어한다(정치, 경제, 학문, 기술 등 시스템계의 체계통합). 중시수준은 독일의 사회학자 짐멜(G. Simmel)이 지적하였듯이 사회통합의 프로세스와 체계통합의 프로세스가 상호작용하는 데서 성립한다. 따라서 수렴론적 테제는 지역주의를 체계통합적 그리고 사회통합적 구조형성 과정이 지역이라는 척도의 한 차원에 수렴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구조 내지 행동을 분석하는 사회과학은 보통 사회를 내-외적으로 고찰하고, 형식적으로 조직된 행동영역과 이해지향적인 행동영역으로 나누며, 화폐나 권력과 같은 매체로 통제되는 경제, 정치행정과 다른 한편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제되는 공적, 사적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략히 말해 이는 시스템계와 생활세계의 구분인 것이다. 물론 시스템계와 생활계 사이에는 복잡다단한 연계망이 구축되어 있다. 추상적 의미에서 재화와 서비스, 소득과 세금의 흐름과 특정 조직의 구성과 운용,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결정 등이 두 세계 사이의 교류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스템구조는 사회제도를 통하여 생활세계와 매개된다. 이는 보통 사회화, 문화, 정형적 법제, 특히 학교와 대학, 그리고 또한 대중매체, 영화, 연극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한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생활세계와 체계영역에서 각각 수행하는 일정한 역할을 통하여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이때 공적 그리고 사적인 행동지향은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여 있긴 하지만 결코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Blotevogel et al, 1989, pp.68-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Habermas, 1981)가 분명히 지적하듯이, 시스템계와 생활세계간의 점증하는 弛緩이 다른 아닌 현대 사회의 특징적 모습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발전의 분화과정에서 부분체계인 경제, 정치행정, 학문, 기술 등에서 체계조직의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하위체계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점 불명료하게 시현되며, 일상생활과 점점 멀어지고 보다 분절되고 일관할 수 없는, 따라서 점점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독자적 동태에 따라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은 이런 의미에서 어떤 위기를 담지하고 있다. 더욱이 이는 공간적 관점에서 돈과 권력에의 의지로 동기화된 도구적, 언어적 공간행동에 의해 비의도적(비주체적)으로 재생산된 경제, 정치적 체계공간은 의사소통적 공간행동을 탈언어화시키고 사회문화적 생활공간을 식민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자신의 합리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 발전을 저해하는 모순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다(최병두, 1991, pp.96-7). 바로 이런 의미에서 서유럽의 지역주의는 체계통합적 구조형성이 사회통합적 구조형성을 일방적으로 우선하는 데서, 그리고 사회통합의 해석학적 모멘트가 체계통합을 강조하는 기능적 근대화 과정에서 계속 억압받아온 데서 발생하며, 바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발전의 대안적인 탐색전략의 특성을 띤다. 사실 근대화론은 친족, 이웃, 종족 등과 같은 중간적 행동체계, 즉 사회와 그 기능적 부분체계인 경제, 정치, 법, 문화 등의 거시차원과 개개인과 가족단위의 미시차원 사이에 자리잡는 중간차원의 여러 구성체와 매개상을 거의 무시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오늘날 서유럽 여러 지역의 연방주의자들은 빈번히 초국가적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수렴론적 테제에 암묵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적 분야에서도 이 테제는 근대화 과정의 파행적 귀결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지역의 척도에서 사회구조의 형성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가 크게 결하고 있다(Pankoke, 1980).

어쨌든 사회체계의 다양한 척도차원에서 사회통합적 구조형성의 비교적 독자적인 기제가 존재한다는 이론과 수렴론적 테제는 서로 결부될 수 있다. 이 테제에 따르면 지역의식 내지 정체성은 구시대의 문화적 유증이나 정치경제적 갈등의 파생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통합 과정의 결과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차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학문적 과제는 제한된 영역규모 또는 인구수 때문에 외연적으로 사회구조적 분화를 충분히 이룰 수 없다고 여겨지는 소국가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

된다. 또한 그에 상응하는 기제를 입증하는 사회통합적 구조화 이론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 핵심은 한편으로 사회적 행동의 공-시간적 구조와 객체 그리고 중첩적 제약과 다른 한편으로 사회행동과 정체성을 조장하는 상징의 인지적 차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될 것이다(Pieper, 1989). 하여튼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재평가, 고장과 지역주의의 르네상스 및 복원 등은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과학 이론이 크게 소홀히 해 온, 그렇지만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공간의 구조와 태도의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회통합적 구조형성 과정의 표출로서 간주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조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항상 개방체계 속에서 그 어떤 요소와도 상호작용 하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자율적인 차원의 한 층위에 수렴된다고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론적 통찰과 아울러 지역주의에 대한 해석에 있어 주목할 점은 지역이 갖는 중간 혹은 매개의 성격이다. 그런데 미시공간적이고 특정 지구와 결부된 국지수준과 전체 국가수준 사이의 중위적 尺度帶域에 자리잡고 있는 범주인 지역은 단순히 어떤 연속상의 공간만이 아니라, 그 양자 사이의 매개적 구성체로서 사회적 공간구조의 측면에서 두가지 질적 도약이 내재되어 있다. 즉, 지역이 더 이상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접적인 여러 매체를 통하여 구축되는 거의 국지적 차원 위에, 그리고 동시에 19세기 이래 정치조직 및 그 정신적 표현(국가의식)과 관련한 국민국가 차원 바로 아래에 자리매김되는 독특한 위상을 지닌 유기적 실체라는 것이다⁶⁾.

5) 탈분화론

수렴론적 테제가 구조형성의 과정과 그 성격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면, 근대화론의 또 다른 비판론자들은 사회발전의 탈분화 현상에 주목한다. 그 예로서 신사회운동이 다시금 거론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도의 노동분업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정치행정적 계층체계의 분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신사회운동은 전근대적 이념상과 연계되어 있는, 체제 합리성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저항운동이다.

그런데 탈분화론에 따르면, 사회정치의 기능적, 구조적 분화는 이미 너무 진척되어서, 전체 체계의 자기산출적인 제반 위기와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위협받을 정도라고 한다. 분화 내지 전문화는 언제나 사회체계의 수행능력에 일정한 효율성을 부가하며 제고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대안에 관한 행동의 여지를 좁히는 사회구조의 부정적 성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실 현대 사회에서 사회구조의 발전, 변동과 성장, 진화, 그 누적적 변화과정에서 사회체계는 다양한 조직적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 점은 특히 조직의 내적 조건과 구성성격, 관리와 관련하여 살펴 볼 수 있는데, 조직을 이루는 구성요소들 간의 불균등한 변화, 과도한 조직밀도, 구조적 불연속성과 경직성, 동형추구로 인한 다양성의 결핍 등이다(홍동식 외, 1995, pp.128-206; Bühl, 1990). 생물학적 체계로부터 유추된 흥미로운 한 논거를 들어 보면, 생물체계가 이전의 분화되지 않은 발전단계로 퇴행 또는 재귀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장잠재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근원적인 잠재력의 재획득과 확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를 들어 직업체계에 있어 분업 조직처럼 현대 산업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과도한 분화는 폐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성분화와 같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예전의 분화는 그 격양된 해소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논제에 의거하면 지역주의는 일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작용하는 복합적 전체 체계에서 막연히 기능적 탈중심화로서 간주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변동을 맞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사회정치체계의 회귀적 구조형성과 재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탈분화론에 조응한 지역주의는 전체 국가의 요구에 따른 각 지역의 일방적인 기능화에 대응한 저항을 말한다. 물론 이때 국민국가의 수직적 통합과정에서 공간적 이용패턴은 지역 안팎으로 그 구조성을 잃게 하는 반면, 반대 급부로 우연성과 다기능성을 얻게 해 준다. 일반적으로 비교적 새로운 패러다임인 탈분화론의 이론적 모델은 자연체계의 탐색으로부터 도출된 자기형성 내지 자기조직화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예를

들어 Ashby, 1962; Haken, 1976; Jantsch, 1980; Nicolis, 1977). 서유럽 국가들이 오늘날 맞고 있는 정치사회적 변동상황의 성격이 물론 수렴과정에서의 퇴행의 경우보다 덜 위기적인 것이며, 재난에 가까운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척도의 요구에 따라 계층체계에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아직도 규정되지 않은 일정한 사회구조로의 이행적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물리적 단계에서 제반 이행과정은 서로 다른 도달범위와 강도를 지닌 여러 힘들이 동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ly and act locally)는 표어가 말해 주듯이, 특히 다양한 사회운동의 국지적, 지역적, 세계적 수준에의 중첩적 지향은 이 모습과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적 안정된 사회공간적 준거틀 또는 연관틀이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현대 사회의 성장, 변동 그리고 발전 가운데서 질서와 통제, 관리를 통한 균형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 가운데서 사회의 활력을 지속시키려는 자기言及性(self-reference)과 자기省察性(self-reflection)을 시사한다. 다만 탈분화 또는 재귀과정도 그 사회정치적 발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구조나 조직이 요청되는데, 이 목적에 비교적 중립적인 領域이라는 연관틀이 내용적으로 훨씬 많은 전제조건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다단한 하위체계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기능적 분화 내지 전문화보다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5.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서유럽의 지역주의 내지 지역주의 운동의 전개양상을 살펴 보고, 지역주의의 성립이 사회발전과정, 특히 산업화와 사회의 근대화와 어떤 함수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역주의 운동의 성립에 바탕이 되는 지역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현실적 설명논리와 아울러 규범적이고 해석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서유럽의 지역주의는 다층적 성격과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지역주의 운동의 표현양태는 복잡다단하며, 동시에 그 분

석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인과론적 접근을 통해서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서유럽의 지역주의를 사회과학 일반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다섯가지 논제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는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점은 이상과 같은 분류는 하나의 분석적 시도에 불과하며, 정치사회적 현상에 어떤 사유체계를 부여하기 위한 도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것이다.

간략히 정리하면, 지속론은 기본적으로 기존 사회질서의 전체성을 역사적, 유기체적 유추에서 포착하려는 사회이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주의를 문화사회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모델이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지역적 연고세계의 보호와 문화적 자치권의 인정 그리고 대개 연방주의적 국가조직의 확립을 통하여 보장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정당한 문화적 자아발전 권리의 실현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번째 지역주의를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의거하여 분석하고 있는 분화론은 기존 사회질서의 통일성을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제반 국가작용의 분업적 내지 기능적 교차 고리에서 도출하고 있다. 내부식민지론을 포함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지역주의의 원인을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지역경제적으로 분열적, 불균형적 양극화 과정에서 찾고 있다. 지역주의를 민주주의론적 그리고 정치과정론적 분석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는 과정론은 대체로 계약론의 전통을 견지하고 있다. 즉, 기존 사회질서의 일체성을 민주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적 의지형성이 국가의 보증 아래 기능하는 데서 입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은 이런 맥락에서 일정한 구획가능한 공간에서 개개인의 생활 및 이해상황의 동일성 위에 형성된다. 이에 지역주의는 분권화 또는 수직적 권력분점을 수평적 권력분점에 의한 보완을 통해 대처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당성 결여의 지표로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조치가 실패할 때, 이미 극복된 것으로 믿었던 국지적 또는 지역적 엘리트집단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엘리트의 경쟁과 정당성 위기 그리고 통치불가능성 등이 곧 바로 영역적 색채를 띠며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사회체계론적 설명에 기초한 수렴

론은 일종의 신기능주의적 지역주의론으로서 전체 국가행정의 통제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그 함의를 탐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탈분화론은 지역주의의 정치적 갈등을 강조하기보다 그 발생 배경과 관련하여 전체 사회발전 모델에서 지역과 지역주의의 전개논리를 탐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변동과 그 조직구상의 맥락에서 지역과 지역주의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제들은 서유럽의 지역주의 운동에 의해 접합된 갈등잠재력을 매우 상이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렴론과 탈분화론에서는 그 갈등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주의를 민족주의와 동일시하고 국민국가의 형성기를 상기시키는 지속론은 갈등잠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이들 논의는 지역주의가 사회과학에서 이론적으로 다양하게 주목받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것은 근대화론의 설명 틀에서 지속되고 있는 문화전통으로 그리고 전근대적인 지방적 할거주의나 정치적 과정의 소산으로 포착되는 한편, 시스템세계의 합목적적 조직화 요구에 환원되지 않는 척도의 문제를 주목케 하고 끝으로 사회체계에서 공간, 시간, 인지, 감성 등과 같이 사회과학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뤄 온 사회공간적, 사회생태적 범주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물론 이들 테제는 실증적 자료에 의하여 더욱 보완되고 정교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렴론과 탈분화론은 일종의 메타이론적 성격에서 원형이론의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지역주의는 근대화 과정에서 간과된 것을 되찾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지역의 존재양식을 오랫동안 所興로서만 간주해 왔다. 그래서 지역주의는 근대화의 사회발전과정에서 퇴색된 역사적 회상이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무력감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 본 것처럼 지역주의는 오히려 근대화의 한계에서 그것을 상대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역, 지역성 그리고 지역주의가 사회경제적, 문화적 생활공간과 관련된 현대 사회의 독특한 조직원리로 상정될 수 있다. 전근대에서 공간적 구획과 분할이 혈연, 지연 등을 통해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다만 전근대적 생활양식으로서만 유효한

구성체로 보는 것은 지역주의의 논점을 그릇 파악하는 데서 오는 시각일 것이다. 문화, 정치 그리고 경제는 현재 세계화와 지역화로 전개되는 조류의 양극단 사이에서 긴장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서 지역차원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지역과 지역주의는 새로운 지정학적 질서개념이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향과 활동들의 연관틀로서 사회통합의 대안적 이념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지역이 일차적으로 지극히 가시적이고 물리적 조형양태로, 일상적으로 경험되는 생활경관으로 표출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극히 복잡다단한 세계의 축약적, 의사소통적 사회조직 원리로서의 성격과 아울러 새로운 행동지향의 정체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Pohl, 1994).

따라서 사회과학에서 지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지역의 범역이 어떻게 형성되고 설정될 것이며, 그리고 지역주의의 사회발전론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지역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유도되어야 할 것인가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실천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현안으로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서 여타 사회경제적 문제와 달리 지역문제의 성격과 본질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깊지 않으며, 특히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고 내지 개념적 분석틀이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여진다. 나아가서 범지구적 세계화의 시대에 지역주의가 현대 사회의 또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깊이있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 동안 한국의 지역주의 논의는 학술적인 체계적 고찰에 선행하여, 사회에 부각된 여러 갈등을 지역과 바로 결부시킨 다소 감정적 접근이 앞섰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서구에서 발생한 지역주의 운동의 배경과 지역주의론을 사회발전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서구에서 논의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지역주의에 관한 고찰은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개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한 한국의 지역주의론에 관한 시각을 확대시키고, 그 접근방법을 체계화하고 정교화하는데 일조하리라고 본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註

- 1) 1990년대에 들어 지역주의에 대한 사회과학 일반의 관심은 70년대 만큼 높지 않다. 물론 80년대를 거치면서 추진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성과가 이제 정리되고 결론이 도출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중동부 및 남동부 유럽의 격렬한 이른바 민족주의 정치의 회귀와 아울러 거의 전세계적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조류와 새로운 지경학적 블록주의의 재흥으로 말미암아 논의의 빈도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Puhle, 1994, p.321).
- 2) 물론 이를 넘어 최근 근대 자체의 새로운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 하에서 쇠퇴와 개혁으로 앞선 발전상황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도 이해된다. 특히 근대화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신흥공업국의 등장, 동구권의 붕괴로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갈등론적 그리고 쇠퇴론적으로 보완된 근대화론도 제기되고 있다.
- 3)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다음을 참조할 것(황태연, 1997, pp.105-131).
- 4) Gerdes, 1994, p.388에 의거하여 재인용.
- 5) 서유럽 각국의 지역 엘리트의 구체적 성격에 관해서는 Bullmann et al.(1997)을 참조할 것.
- 6)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주의와 관련하여 수렴론적 태세의 구체적 함의를 적절히 지적인 인용을 통하여 시론적으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의는 어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지역단위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통합된 국가체제와 그 하위 지역 단위에 기반을 둔 생활세계를 상호 연결시켜주는 매개적 고리의 구실을 해야 한다. 즉, 거대한 국가 기구가 일방적으로 개인적 혹은 소규모 공동체의 삶을 억압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지역주의는 때로 완충적 경계의 역할을 해야 하며, 혹은 국가 기구의 정책결정과 지역적 현장에서 펼쳐지는 삶을 과정이 서로 괴리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김성국, 1987, p.212).

文 獻

- 김문조, 1992, 한국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 한국 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서울, 151-165.
- 김성국, 1988, 지역주의의 전개와 지역운동론 모색, 사회운동과 사회계급, 전예원, 서울, 197-

- 219.
- 김종철 외, 1991, 지역감정연구, 학민사, 서울.
- 남영신, 1991, 지역패권의 연구, 학민사, 서울.
- 박영한, 1985, 문화와 지역주의: 지방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개발, 지방의 재발견, 민음사, 서울, 209-228.
- 오재일, 1994, "지역주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정립에 관한 고찰", 대구/경북 행정학회보 6(2), 43-62.
- 임경수, 1989, "지역불균등과 지역주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 25-38.
- 조 은, 1992, 한국 지역주의의 형성과 성격에 대한 논평,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서울, 167-170.
- 최병두, 1991, 한국의 공간과 환경, 한길사, 서울.
- 한국사회학회 편, 1992,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성원사, 서울.
- 홍동식 · 강대기 · 민경희 옮김, 1995, 인간생태학: 지역공동체 이론, 일지사, 서울(Hawley, A., 1986, *Human Ecology: A Theoretical Essa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황태연, 1997, 지역패권의 나라, 도서출판 무당미디어, 서울.
- Agnew, J.A., 1987, *Places and Politics: The Geographical Mediation of State and Society*, Allen & Unwin, Boston.
- Allum, P., 1995, *State and Society in Western Europe*, Polity Press, Cambridge.
- Ashby, W.R., 1962, Principles of the self-organizing system, in H. von Foerster and G.W. Zopf Jr.(eds.), *Principles of Self-Organization*, Pergamon Press, London, 255-78.
- Bahrenberg, G., 1993, Dimensions of regionalism, in E. Dirven, J. Groenewegen and S. van Hoof(eds.), *Stuck in the Region: Changing Scales for Regional Identity*, *Nederlandes Geographisches Studies* 155, 61-74.
- Blotevogel, H.-H., Heinritz, G. and Popp, H., 1989, Regionalbewußtsein: Zum Stand der Diskussion um einen Stein des Anstosses, *Geographische Zeitschrift* 77, 65-88.
- Boesler, K.-J., 1982, *Politische Geographie*, Teubner, Stuttgart.
- Brand, K.-W.(ed.), 1985, *Neue soziale Bewegungen in Westeuropa und den USA: Eine internationaler Vergleich*, Campus, Frankfurt.
- Bühl, W.L., 1990, *Sozialer Wandel im Ungleichgewicht*, Anke, Stuttgart.
- Bühl, W.L., 1992, *Deutschland im sozioökonomischen Systemvergleich: Diagnose und Entwicklungsperspektiven*, Leske+Budrich, Opladen.
- Bullmann, U.(ed.), 1994, *Die Politik der dritten Ebene: Regionen im Europa der Union*, Nomos, Baden-Baden.
- Bullmann, U., Goldsmith, M. and Page, P.C., 1997, Regieren unter dem Zentralstaat: Regionen, Kommunen und eine sich verändernde Machtbalance in Europa, in U. Bullmann and R.G. Heinze(eds.), *Regionale Modernisierungspolitik: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Perspektiven*. Leske+ Budrich, Opladen. 109-141.
- Danielzyk, R., 1994, Regionalisierung der Ökonomie: Regionalisierung der Politik in Niedersachsen: Zur Aktualität geographischer Regionalforschung, *Berichte zur deutschen Landeskunde* 68(1), 85-110.
- Esterbauer, F. and Perenthaler, P.(eds.), 1991, *Europäischer Regionalismus am Wendepunkt: Bilanz und Ausblick*, Braumüller, Wien.
- Gerdas, D., 1987, Regionalismus und Politikwissenschaft: Zur Wiederentdeckung von Territorialität als innenpolitischer Konfliktdimension, *Geographische Rundschau* 39(10), 526-531.
- Gerdas, D., 1994, Regionalismus und Regionalisierung in Frankreich: Ansatzpunkte einer vergleichenden Regionalismus-/Nationalismusforschung, *Geschichte und Gesellschaft* 20, 321-323.
- Giddens, A., 1984, *The Constitution of Society: Outline of the Theory of Structuration*, Polity Press, Cambridge.
- Gottmann, J.(ed.), 1980, *Centre and Periphery: Spatial*

- Variation in Politics*, Sage Publications, Beverly Hills/London.
- Habermas, J., 198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Suhrkamp, Frankfurt.
- Hadjimichalis, C., 1987, *Uneven Development and Regionalism: State, Territory and Class in Southern Europe*, Croom Helm, New Hampshire.
- Haken, H., 1976, *Synergetics: An Introduction, Nonequilibrium Phase, Transitions, and Self-Organization in Physics, Chemistry and Biology*, Springer Verlag, Berlin/Heidelberg.
- Harvie, C., 1994, Historical Perspectives on European Regionalism, in U. Bullmann (ed.), *Die Politik der dritten Ebene: Regionen im Europa der Union*, Nomos Verlagsgesellschaft, Baden-Baden, 419-430.
- Harvie, C., 1995, Kultur und Gesellschaft, in H. Kastendiek, K. Rohe and A. Volle(eds.), *Großbritannien: Geschichte, Politik, Wirtschaft, Gesellschaft*, Campus, Frankfurt/New York, 471-493.
- Hechter, M., 1975,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Hradil, S. and Immerfall, S.(eds.), 1997, *Die westeuropäischen Gesellschaften im Vergleich*, Leske+Budrich, Opladen.
- Hrbek, R. and Weyand, S., 1994, *betrifft: Das Europa der Regionen - Fakten, Probleme, Perspektiven*, Beck, Muenchen.
- Jahtsch, E., 1980, *The Self-organizing Universe: Scientific and Human Implications of the Emerging Paradigm of Evolution*, Pergamon Press, London.
- Jordan, T.G., 1996, *The European Culture Area: A Systematic Geography*(3rd ed.), Harper Collins.
- Klüting, E.(ed.), 1991, *Antimodernismus und Reform: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Heimatbewegung*,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Darmstadt.
- Kolinsky, M., 1984, The nation-state in western Europe: erosion from above and below? in D. Massey and J. Allen(eds.), *Geography Matters! A Leade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66-180.
- Kriesi, H., Koopmans, R., Duyvendak, J.W. and Giugni, M., 1995, *New Social Movements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 Krosigk, F. von, 1980, Zwischen Folklore und Revolution: Regionalismus in Westeuropa, in D. Gerdes(ed.), *Aufstand der Provinz: Regionalismus in Westeuropa*, Campus, Frankfurt, 25-48.
- Lindner, R.(ed.), 1993, *Die Wiederkehr des Regionalen: Über neue Formen kultureller Identität*, Campus, Frankfurt/New York.
- Luhmann, N., 19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Suhrkamp, Frankfurt.
- Markusen, A., 1987, *Regions: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erritory*, Rowman and Littlefield, New Jersey.
- Massey, D., 1978, Regionalism: some current issues, *Capital and Class* 6, 106-125.
- Müller, H.-P. and Schmid, M.(eds.), 1994, *Sozialer Wandel: Modellbildung und theoretische Ansätze*, Suhrkamp, Frankfurt/New York.
- Newhous, J., 1997, Europes rising regionalism, *Foreign Affairs* 76(1), 67-84.
- Nicolis, G. and Prigogine, I., 1977, *Self-Organization in Nonequilibrium Systems: From Dissipative Structures to Order through Fluctuations*, John Wiley & Sons, New York.
- Pankoke, E., 1980, Polis und Region: Sozialräumliche Dimensionen kommunaler Kultur, *Sociologica Internationalis* 15, 31-61.
- Pieper, R., 1987, Region und Regionalismus: Zur Wiederentdeckung einer räumlichen Kategorie in der soziologischen Theorie, *Geographische Rundschau* 39(10), 534-539.
- Pieper, R. 1989, *Die neue Sozialphysik: Zur Mechanik*

- der Solidarität*, Campus, Frankfurt a.M.
- Puhle, H.-J., 1979, *Wirtschaftsentwicklung, Modernisierung und Politischer Regionalismus in Spanien: Allgemeine Probleme vergleichender Forschung unter Berücksichtigung des Baskenlandes*, Manuscript des Vortrages vom 6. und 7. Juli 1979 in Bad Homburg im Arbeitskreis 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 über Spanien und Portugal.
- Riescher, G., 1991, Thematische Einführung: Problemstellung, Untersuchungsmethode, Ergebnisse des Forschungsprojektes. in G. Riescher(ed.), *Regionalismus 90: Zur Dialektik des westeuropäischen Einigungsprozesses*, K.G. Saur, München. 9-23.
- Sales, I., 1995, Der Norden und Süden: die Rolle des Staates bei der wirtschaftlichen und sozialen Spaltung Italiens, *Prokla* 98, 111-121.
- Schelter, K. and W rmeling, J., 1995, *Europa der Regionen: Eine Idee gewinnt Gestalt*. Bayer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sarbeit, München.
- Schmidtke, O and Ruzza, C., 1993, Regionalistischer Protest als Life Politics: Die Formierung einer sozialen Bewegung: die Lega Lombarda, *Soziale Welt* 44(1), 5-29.
- Touraine, A., 1986, Krise und Wandel des sozialen Denkens, in J. Berger(ed.), *Die Moderne: Kontinuitäten und Zäsuren*, Göttingen, Schwartz, 15-39.
- Willke, H., 1993, *Systemtheorie*(4th ed.), Gustav Fischer, Stuttgart.
- Zapf, W., 1997, Entwicklung als Modernisierung, in M. Schulz(ed.), *Entwicklung: Die Perspektive der Entwicklungssoziologie*, Westdeutscher Verlag, Opladen, 31-45.